

2024. 2. 14.(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1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	이창현	2133-2805
--------	-----	-----------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4쪽

마이스정책팀장	이효신	2133-2767
---------	-----	-----------

서울시, 마이스 관광객 120만명 목표... '마이스 산업' 집중지원 나선다

- '서울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위한 본격 지원 들어가... 올해 90억 원 투입
- 중대형(3천 명 이상)·시 핵심산업 연계행사 집중 유치, 홍보·세일즈 적극 지원
- 동남아·인도 등 신시장 확대, '탄소제로 마이스도시' 우수 실천기관에 1천만 원
- 시 “고부가 ‘마이스 산업’ 지원 강화해 서울 관광의 질적 성장 이끌어 낼 것”

- 서울시가 올해 ‘마이스 관광객 12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집중 지원과 투자에 나선다. 시정과 관계가 깊은 행사는 초기부터 시가 참여하여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한편 잠재력 있는 행사에는 전문 컨설팅과 예산도 지원한다.
- 또 라스베이거스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처럼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표 전시회·국제회의를 육성하고 마이스를 포함하여 비즈니스와 여가를 겸한 ‘블레저(Bleisure) 관광 시장’ 활성화도 유도한다.

※ 마이스(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국제 이벤트(Exhibition·Event) 등 비즈니스 행사를 총칭하는 용어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유망 산업

□ 서울시는 고부가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77억 원) 대비 예산을 15% 이상 늘어난 총 90억 원을 투입,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 ▲마이스 유치 마케팅 ▲국제 이벤트 ▲블레저 관광 육성 ▲ESG 컨설팅 등 분야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은 9년 연속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로 선정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해 온 만큼 분야별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미주지역 비즈니스 관광 전문잡지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매년 선정하는 ‘글로벌 트래블러 리더 서베이 시상식(Global Traveler Tested Reader Survey Award)’에서 지난해 구독자 30여만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산업분야별 최고를 선정, 9년 연속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로 선정

□ 먼저 참가자 3천 명(외국인 1천 명 포함) 이상의 중대형 또는 서울시 5대 핵심산업과 관련된 마이스 행사를 집중 유치하는 한편, 서울시정과 연관성이 큰 행사는 시가 유치 전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성공적인 유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 ‘2025년 국제컨벤션협회(ICCA) 총회’를 비롯해 서울의 핵심산업 분야인 바이오·첨단기술 등과 관련한 관련 중대형 국제회의 30건을 유치 추진하기 위해 행사당 최대 2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

※ 5대 핵심산업('24년 중점 추진)

①인공지능(AI) ②로봇 ③바이오(Bio) ④핀테크 ⑤창조(뷰티·패션·XR·게임·영화·웹툰 등)

□ 또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시회로 잠재력이 있는 행사 중 올해 33건을 선정해 전문 컨설팅과 최대 8천만 원 지원을 비롯해 서울시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돕고, 서울 기반의 국제회의를 발굴해 육성하는 S-BIC(Seoul-Based International Conference)도 단계별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 시는 올해 총 4개 S-BIC 행사를 선정해 전문 컨설팅 및 최대 8천만 원을 지원, 서울 소재 국제회의 기획업체와 주최기관의 장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회의의 국제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바이오·의료	AI	창조(미식)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스마트공장 자동화 산업전	서울카페쇼

〈'23년 서울시 선정 글로벌 전시회〉

- 그간 대형 중국 단체에 집중돼 온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단체 유치도 동남아, 인도 등 신시장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집중 마케팅한다. 외국인 1인당 2만 원 상당의 현물을 획일적으로 지원했던 지원금도 앞으로는 외국인 수, 체류 숙박일수를 반영해 차등 지원한다.
- 마이스 산업의 범위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 융복합 형태의 비즈니스·엔터테인먼트 이벤트 등 다양한 ‘국제이벤트 유치·개최’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비즈니스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일과 여가를 겸한 ‘블레저(Bleisure) 관광’ 시장 활성화도 유도한다.
- 시는 사회·경제적 파급 및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제이벤트’ 유치 대상을 선정하고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며,

- 미이스를 비롯해 ‘고소득·고소비’ 특성을 갖는 일반 상용 목적의 관광을 아우르는 블레저 관광에 특화된 프리미엄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 또 시는 올해를 ‘서울형 미이스 ESG 실천’의 원년으로 삼고 「탄소제로 미이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에도 나선다. 미이스 행사에서 실질적인 ESG 실천이 이뤄지도록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 실천 기관에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등 미이스 업계가 ESG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분야별 미이스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서울미이스 누리집 (korean.miceseou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국제회의, 전시회, 기업회의·인센티브 등 지원금은 분야별로 신청 일정과 절차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미이스 산업은 행사 유치와 개최에 투입되는 지원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300배에 이르는 효자산업”이라며 “올해 ‘미이스 관광객’ 12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고, 관련 산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여 서울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